# 한국수력원자력(주)

##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진료 체제 마련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최근 동국대경주병원과 방사선 비상진료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월성원전은 방사선 비상사고로 인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의료지원 활동을 통해 원전 종사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방재기관과 합동하는 비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협력지원체제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관계자는 "협약을 맺은 동국대 경주병원이 원전 소재지와 가까이 있어 인근 주민의 정기건강검진사업과 의료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력병원

## 원자력의학원 체제 출범

원자력병원(원장 심윤상)이 "원자력의학원" 체제로 출범한다.

8월 29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 승인(9월 4일)을 받음으로써 "원자력병원"은 "원자력의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고, 산하에 "원자력병원"과 "방사선의학연구센터"를 두게 된다. 병원은 그동안 연구와 진료부문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부문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여 왔었고, 지난해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내부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원자력의학원 체제로 출범하기 위한 기능정립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금년 3월 이사회에서 "원자력의학원" 체제로의 전환과 "암에 관한 연구", "국가방사선비상진료" 등 종전의 병원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을 의결하였고, 이번 이사회에서 직제규정이 의결되어 원자력의학원 체제의 직제 및 하부조직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새로 출범하는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암 진료, 방사선의학연구 및 국가방사선비상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진료와 연구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전문 연구 · 진료기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초대 원자력의학원 원장은 현재의 심윤상 병원장이 승계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회원사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달에 있었던 소식을 RI NEWS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3411-6496 ●담당자 : 임 지 은